

나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기초자료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으로는 서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본체를 이룬다.'는 내용의 삼위일체 교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도, 우리네 언어로 설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교회는 이를 '신비', '믿어야 할 교리'로 선포한다.

1) 하느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느님

2) 예수님

하느님에게서 나신 외아들로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3) 성령님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는 분.

당신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전해 주시며,

교회에 은총과 은사를 내려 주신다.

유비적 설명

'셋이 하나'라는 말은 어떠한 인간 논리나 말로도 설명할 수 없기에 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유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마치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 간의 사랑이 클수록 서로가 하나임을 체험하게 되듯이,

세 위격 간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완전하기에

결코 분리되지 않는 온전한 하나의 실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비 속에 계신 하느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하여 표현하려 하기 보다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상으로 거듭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하겠다.

한 분이신 하느님

“

하느님께서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애쓰신 신이 있느냐? (신명 4,32-34)

”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세상에 당신의 뜻을 내리시며,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

“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시다. (로마 8,15)

”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며,
이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외칠 수 있게 된다.

우리들의 사명

“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 28,18-19)

”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스스로가 하느님이심을,
성부, 성령과 동등한 하느님이심을 명확히 밝히고 계신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 바로 하느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양한 구성원이 모인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깊은 친교와 일치름 이름으로써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본받도록 노력해 보자.